**리움미술관 단위 별 상세 체크리스트 작성**

|  |  |  |  |
| --- | --- | --- | --- |
| **문서 ID** | 20210903\_01 | **문서명** | 단위 별 상세 체크리스트 |
| **작성자** | 백희연 | **작성일자** | 21.09.03 |
| **수정자** |  | **최종 수정일자** |  |

|  |  |
| --- | --- |
| **1. 가능성 항목** | |
| **가능성** | 화면 선택 및 이동에 따른 로딩의 속도는 적절한가? |
| 답 : 남녀노소 모두가 체크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상 시간은 1초로 잡고 있다. |
| **상호작용성** |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가?  현재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
| 답 : 에러사항은 의무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진행상황은 보여줘야 할 요소라고 해도 “로고파일 다운로드”나 영상 시청이 정도 인데 대부분 브라우저 지원이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작업될 예정이라 직접적으로 큰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안정성** | 연결되지 않은 메뉴와 화면이 존재하는가? |
| 답 : 링크들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버에는 알맞게 올라가 있는 지의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의 필요성을 생각해 둬야한다. |

|  |  |
| --- | --- |
| **2. 디자인 항목** | |
| **일관성** | 메뉴, 버튼, 명령어 등의 명칭은 일관성이 있는가? |
| 답:  위의 세가지 컬러를 기준으로 통일성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키워드들 중 외래어에 포함되는 (ex)멤버십) 단어들의 경우는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텍스트 교체 기능을 사용해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
| **색의 대비** | 텍스트와 배경 색상의 디자인 적인 구분이 명확한가? |
| 답 : 배경색상은 고급스러움, 심플함, 교육, 교양이라는 컨셉에 맞게 기본적으로 흰색 배경을 사용하며 무채색계열을 지향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위해 역으로 디자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에  제일 기본인 흰색배경에 검은 글씨를 채택하고 있어 뛰어난 가독성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
| **영역의 구분** | 데이터 입력 영역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표현되는가? |
| 답 : CSS를 통해 input 영역의 높이 값을 일반적인 폼의 크기보다 넓게 잡고 있다. 라이벌 격인 국립현대미술관의 회원가입 폼을 벤치마킹 하였는데 height의 값을 55px로 잡고 있다. |
| **폰트크기** | 폰트의 크기는 적합한가? |
| 답 : 어떠한 폰트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요소이지만 선점된 Gmarket Sans의 경우 딱딱한 고딕체와 더불어 폰트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18px의 light 속성으로 지정하였다. |
| **시각적 분류** | 시각적 항목을 분류하거나 그룹화 할 수 있는가? |
| 답 : 적절한 이미지 사용과 연관된 아이콘 사용을 통해 항목별로 그룹화할 수 있다. |
| **메뉴 접근** |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가? |
| 답 : 모든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표준배치를 사용하였기에 접근성이 높다고 평할 수 있다. |
| **색상 사용 정도** | 색상의 사용 정도는 적절한가? |
| 답 : 위의 일관성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각 항목에 사용할 색상들을 분리하였기에 위치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였다.영역의 크기와 배치에 맞는 색조합이기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폰트 사용 정도** | 폰트 사용의 정도가 적절한가? |
| 답 : 폰트를 오직 1가지만 사용하기에 정도를 측정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 **버튼 크기** | 버튼의 크기는 적절한가? |
| 답 : 보통의 버튼 크기보다는 와이드 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시각장애인 이외에도 흐릿하게 보이는 노인분들, 근/난시 사용자들을 위해 크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
| **메뉴의 일관성** | 방향 전환에 따른 메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가? |
| 답 : 모바일 및 태블릿 환경에서의 구현계획을 잡아보지는 않았다. 다만 PC를 기준으로 하면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모바일 버전으로 리사이징을 기획하고 있기에 디바이스에 맞는 디자인을 계획 중 이다. |
| **기능 명칭** | 기능의 명칭이 실제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 답 : 물론이다. 실제로도 홈페이지 시안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들을 정리하여 계획하였다. |

|  |  |
| --- | --- |
| **3. 제어 항목** | |
| **화면 제어 일관성** | 화면의 레이아웃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가? |
| 답 : 홈페이지의 내용의 경우 1200px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범위로 넘어가지 안으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정보제공에 불편함이 없는 전제하에 침범은 있다. |
| **스크롤의 적합성** | 스크롤이 필요한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행위를 유도하는가? |
| 답 : 세로 스크롤의 경우에는 디자인 시안의 길이가 있으니 불가피하지만 가로 스크롤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디자인 요소로도 그다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서다. |
| **업무 진행**  **상황 표현** | 작업 중에 업무 진행 상황을 나타내 주는 표시가 명확한가? |
| 답 : 이 부분은 회원가입 페이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회원가입 과정을 나타내는 기능의 디자인을 잡아봤다. |
| **필수 / 선택 입력 구분** | 필수 입력과 선택 입력에 대한 구분 표시가 명확한가? |
| 답 : input의 autofocus 기능과 required 속성을 추가하여 표시해줄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디자인 시안에서도 표시하고 있다. |
| **피드백** | 액션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가? |
| 답 : 위의 항목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필수 응답이 필요한 부분에는 <input type=”” required>를 통해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안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체크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접근성** | 사용 빈도 높은 메뉴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는가 |
| 답 : 웹 디자인의 표준 레이아웃을 선택하기도 하였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해야할 부분들은 Quick-Bar를 통해 사용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였다. |

|  |  |
| --- | --- |
| **4.호환성 목록** | |
| **웹 표준 문법 준수** | 표준 (x)HTML 문법을 준수하는가? |
| 답 :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편법을 사용할 의사도 있다. |
| 표준 CSS 문법을 준수하는가? |
| 답 :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어인 만큼 준수하기 위한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
| **웹 호환성 확보** | 기능 호환성을 확보하는가? |
| 답 : HTML,CSS, JAVASCRIPT의 경우는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언어이기에 다른 플러그인 및 확장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넓은 호환성을 보장하려 한다 |
| 화면 표시 호환성을 확보하는가? |
| 답 : 어떠한 화면에도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영역 값 을 1200px 로 잡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 **비표준 기술 제거** | 비표준 기술 제거를 했는가? |
| 답 : 비표준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 |
| 최신 웹 표준 기술을 사용했는가? |
| 답 : JAVASCRIPT에서 var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

|  |  |
| --- | --- |
| **4.접근성 목록** | |
| **인식의 용이성** | 대체 텍스트 제공이 가능한가? |
| 답 : 시맨틱 태그 사용을 통해 최대한의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 멀티미디어를 대체할 수단이 제공되는가? |
| 답 : 이부분은 기업의 자료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는가에 대해 파악해보고 계획을 잡아봐야 할거 같다. |
|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료한 제공이 가능한가? |
| 답 : 이미지는 alt태그를 통해 이미지의 설명을 부착하고 유튜브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예정이다. |
| **운용의 용이성** | 사용자의 입력장치로의 접근이 수월한가? |
| 답 : 키보드 사용은 물론 낭독기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접근성을 계획하고 있다. |
|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는가? |
| 답 : 기준을 1초로 잡고 있다. 다만 회원가입 등 직접적인 입력요소가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한 항목에는 3분 내지 5분의 유효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번호인증) |
| 광과민성 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가? |
| 답 : 이부분은 아무래도 작품을 보여줘야 하다보니 계획에는 넣어두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무채색으로 디자인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
| 사용자에게 쉬운 네비게이션이 제공되는가? |
| 답 : 대중이 곧 사용자 이기에 제공되는 순서를 표준화 하였다. |
| **이해의 용이성** | UI 가독성이 좋은가? |
| 답 :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다. |
| 메뉴 및 기능의 다음 액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가? |
| 답 :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의 적절한 배치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
| 콘텐츠의 논리적인 제공이 가능한가? |
| 답 :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인 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보장할 수 있다. |
| 사용자 입력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답 : 그렇다. |
| **견고성**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이 용이한가? |
| 답 : 네이버에 등록해야 접근이 용이할 듯 싶다… |